

“도와주세요” 음식·숙박업, 금융지원 문의·지원 쇄도

도소매업 이어 각종 행사 취소에 관련 중소·중견업체 피해 도미노 대출상환 유예, 보증지원 등 요청 금융당국·은행·카드사 지원 총력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이 매출감압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을 비롯해 어린이 집 휴원이나 졸업·입학식,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관련업체의 피해가 커지는 연쇄효과도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담 지원은 지난 7일 시행 이후 18일까지 8영업일간 5683건, 약 3228억원 규모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지원 규모 역시 초반 나흘간 800억원에서 빠르게 늘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315억원(4952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됐다.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를 통한 지원은 913억원(731건)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여행을 취소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의 지원요청이 많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수출입업체 등 원산지 중국 관련 피해가 컸다면 이제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에서 피해가 본격화됐다.

금액으로는 숙박업의 금융지원이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020.2.7~2.18)

구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897	213.6	30	247.2	277	20.6	1204	481.3
숙박업	38	240.8	26	281.6	2	0.4	66	522.7
소매업	945	280.9	17	16.9	98	9.4	1060	307.1
도매업	517	288.5	26	75.7	0	0.0	543	364.2
여행레저업	134	58.5	5	5.7	25	2.6	164	66.8
운수·창고업	314	121.9	0	0.0	6	3.2	320	125.1
자동차 제조업	26	52.1	0	0.0	0	0.0	26	52.1
기계·금속제조업	190	178.2	3	2.3	11	1.0	204	181.5
섬유·화학제조업	137	121.6	7	40.4	0	0.0	144	162.0
기타	1700	754.4	65	194.9	133	11.4	1898	960.7
총계	4898	2310.5	179	864.6	552	48.5	5629	3223.5

단위: 건, 억원

/자료=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522억7000억원 규모로 가장 컸다. 특히 정책금융의 경우 숙박업체당 약 6억원이 지원돼 평균치 47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원건수로는 음식점이 1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골목상권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규모는 481억3000만원 규모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음식점업이 지원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에 금리·연체료 할인과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각각 364억2000만원, 307억1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마스크포장업체인 A사는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생산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요청하면서 운전자금 대출을 문의했다. 서울지역 공연기획업체 B사는 2월에 진행하기로 했던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에 취소되면서 특례보증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했던 C사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매출액이 줄면서 분할상환 금액을 유예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지원상담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금융지원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금융부담 이행 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총 1만70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대부분이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자금지원 문의였다”며 “특히 호텔·숙박·여행·레저 등 관광업종에

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많았고, 중국에서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애로, 현지 자회사의 조업 차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요청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보증과 대출, 수입신용장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 역시 신규자금 공급,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 자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면책되도록 조치했다. 지원기업의 부실이 향후 책임소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코로나19 추경 한목소리 메르스보다 많은 15조원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11조원 규모 이인영-황교안 추경 필요성 공감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가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 전례를 고려해 여야 정치권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가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1040억 원의 목적 예비비까지 투입했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편성 ▲집중된 관광·숙박·음식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대구·경북 지역 특별 재정지원 등 추경 편성 원칙과 야당도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대구·경북에는 병원과 의료진, 음압 시설 등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요구한 점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 권고에 따라 (방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규정이 엄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1차에는 깜빡했니? 2차에도 놓칠거니?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월) ~ 3월 10일(화)
★ 신입생은 반드시 신청! ★ 1차신청 놓친 재학생도 신청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월) 9시 ~ 3.10.(화)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3.(월) 9시 ~ 3.12.(목) 18시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신청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 가능(재학 중 2회에 한함)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Android

iOS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